

새 책

▶인플루언서의 말센스(제이슨 헤리스 지음, 서유라 옮김)=불신과 의심의 시대, 타인의 마음을 얻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일이 됐다. 저자는 '가장 신뢰도가 낮은 직업'이라는 선견견과 맞서며 특유의 설득의 비결을 여러 인플루언서의 일화와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보여준다. 부키, 1만8000원.



▶카이사르의 마지막 숨(켄 지음, 이충호 옮김)=저자는 공기에 얽힌 기묘하고도 흥미진진한 과학과 때로는 비극적이고 익살맞은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박진감 넘치게 그려낸다. 산소를 이용해 대담한 강도 짓을 벌인 도둑의 발자취를 따라가는가 하면, 의학 역사상 처음으로 가스 마취제를 도입한 수술 장면을 보여주고, 아인슈타인이 완전한 냉장고를 만들기 위해 분투한 이야기도 들려준다. 해나무, 2만원.



▶불안한 마음 괜찮은 걸까?(오강섭 지음)=강박장애, 공황장애, 광장 공포 등 병이 된 불안에는 여러 이름이 붙어 있다.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의 원인을 아는 것이다. 책은 불안이 무엇인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는지, 불안을 다스리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 불안에 관한 모든 것을 소개한다. 코리아닷컴, 1만6000원.



▶황금 모피를 찾아서(오세영 지음)=한국에서 시작해 중국,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를 거쳐 터키까지 실크로드를 통과해온 시인의 발자취를 통해 모종의 '장쾌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긴 여행을 통해 차이 속의 동질성, 동질성 속의 차이들을 발견한다. 문학사상, 1만3500원.



▶나다움 좀 아는 10대(이재환 지음)=저자는 내가 누구인지, '나다움'이 무엇인지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데카르트와 레비나스의 철학을 통해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다만 저자는 어느 한 철학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 두 철학자의 철학을 발판 삼아 스스로 '나'를 찾아가는 길을 터줄 뿐이다. 풀빛, 1만3000원.



▶녹색평론 통권 180호(9-10월호)=녹색평론은 창간 이래 산업문명을 근저에서부터 묻고, 문명적 위기를 직시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구조적, 사상·철학적 장애물 돌파를 가능하게 해 줄 지식, 지혜, 실현, 아이디어, 이야기들을 찾아 소개해왔다. 이번호에서는 '학교가 문명전환의 동력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보고자 노력했다. 녹색평론사, 1만2000원.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사심 없이 그저 시간 낭비할 자유를 위해

김문겸·이일래·인태정의 '여가의 시대'

극한 노동 반작용 여가 대두 여가문화 속 각종 소외 문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국민여가활동조사'가 있다. 2020년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이 평일 3.7시간, 휴일 5.6시간이라고 했다. 88개에 달하는 세부 여가활동 중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항목은 여전히 '텔레비전 시청'이었다. '산책과 걷기'가 그 뒤를 이었다. 일과 여가가 조화된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에선 여가친화기업도 인증한다. 우린 지금 '여가를 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부산대 사회학과 김문겸 교수가 이일래·인태정 박사와 공저한 '여가의 시대'는 공휴일 제도에서 키덜트 현상까지 살펴본 자본주의가 인간의 필수적인 활동인 여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분석하고 있는 책이다. 우리 시대의 다양한 여가문화 속에 그 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소외도 들여다봤다.

사회제도적 차원에서 여가의 문제는 초기 자본주의 시기 노동시간이 극한적으로 연장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났다. 1919년 국제노동기구에서 1일 8시간 노동제가 채택된 이후 주5일 근무제, 유연근로 시간제 도입 등으로 생활시간구조에서 여가시간은 점차 증가했다.

저자들은 여가의 영역도 노동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결핍과 모순을 가져온다는 점을 짚었다. 오늘날 여가를 즐기지 못한다는 것은 창피하다는 느낌을 주고 그것은 보수가 낮은 직장에 종사함으로써 즐거움을 추구할 수 없을 정도로 생존경쟁에서 뒤졌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사회적으로 제시된 표준화된 삶의 양식, 즉 이렇게 사는 것이 즐겁게 사는 것이고 가족들이 행복할 것이라는 프로그래밍된 여가소비의 기호가 강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충족을 위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의무처럼 되어버린 해면 일과육과 스키야행, 에어로빅과 헬스장 상정되는 육체에 대한 강박관



념, 똑같은 장소로 몰려드는 행락객들의 혼잡함 등을 떠올리면 된다. 식량기근에 시달렸던 전통사회와 달리 오늘날은 '시간기근'에 허덕이고 있다. 자유시간의 일 분 일 분 속에서라도 진정한 탈출과 만족을 찾다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다. 하지만 이를 거스르며 사심 없이 그저 시간을 낭비할 자유를 누리려는 움직임이 있다. 슬로우 라이프 등 느림에 대한 미학의 출현, 현대인의 뇌를 쉬게 하자는 '명때리기 대회'가 그런 예다. 여가를 통한 일상적 삶의 회복을 위한 투쟁은 현재진행형이다. 호밀밭, 2만원. 전선희기자

우리 결의 소시오패스에 어떻게 대응할까

스타우트의 '그저 양심이 없을 뿐입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형제자매를 괴롭히며 즐거워하는 아이, 전문가의 권위로 아무렇지도 않게 비리를 저지르는 의사, 일면식도 없으면서 SNS에서 사이버 폭력을 휘두르는 자.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괴롭히고 싶어 면접권을 주장하는 이혼한 전 배우자. 은밀한 공간에서 폭력을 행하는 가정폭력범과 성직자. 노인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뺨뺨하게 사기 치는 장사꾼.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이자 심리 상담가인 마사 스타우트 박사는 이런 이들을 '소시오패스'라고 불렀다.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를 통해 소시오패스에 의한 피해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알렸던 그가 이번에는 소시오패스에 대처하는 방법을 담은 '그저 양심이 없을 뿐입니다'를 냈다. 저자는 통계상 25명 1명이 우리

결에 존재하는 소시오패스라고 했다. 남을 속이고 조종하는 능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들은 양심이 없기 때문에 어떤 죄책감도 없이 아주 오랫동안 누군가를 잔인하게 괴롭힐 수 있다. 소시오패스가 벌이는 행동들은 왜 우리가 서로를 돕고 연대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그는 '소시오패스의 싸움을 위한 10가지 주요 지침'도 제시했다. 주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없는 소시오패스를 대상으로 하는 지침이지만 폭력 성향이 있거나 그것을 드러낼 조짐이 보이는 소시오패스에 대응할 때 필요한 정보도 들었다. 스타우트 박사는 단체, 기관, 기업, 정부 역시 소시오패스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 말한다. 돈을 벌 목적으로 유해한 화학 물질 사용 등



고객의 행복을 희생시키는 기업, 권력을 거머쥐겠다는 일념밖에 없는 정치의 모습이 그렇다. 그래서 도덕적인 지도자가 이끄는 정부를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 소시오패스 성향이 있지는 않은지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다. 지도자가 어느 정도 만큼 사람들에게 유대감을 느끼고 공감하며 책임감과 정직함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원천 옮김, 사계절, 1만7800원.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이 책 현택훈 동시집 '두점박이사슴벌레...' 공존하는 삶 꽃자왈의 안녕을 빌며



박물이 그린 현택훈의 동시 '제주도롱뇽' 속 그림.

시집은 제주시 조천읍 선흥리 '먼물깍'에서 시작해 제주 섬 곳곳에 퍼져 있는 '꽃자왈'로 찬찬히 향한다. 이 섬의 땅과 바다에 사는 동식물에 대한 애정을 담은 노래들은 결국 색색의 생명체들이 어우러진 꽃자왈에 바치는 피날레의 '합창'을 위한 '독창'이었다. 시집 '지구 레코드', '남방큰돌고래', '난 아무 곳에도 가지 않아요'를 출간했던 제주 현택훈 시인이 처음 펴낸 동시집 '두점박이사슴벌레 집에 가면'이다. 컬러풀한 표지 화면에 두점박이사슴벌레 형상이 부조처럼 내려앉은 이 시집은 시인의 연년의 기억에서 출발하고 있다. 어릴 적 시인은 늦잠을 잘 때 꿈쩍도 않는 엄마의 말을 들으면 매미를 꿈꿨고, 산길을 걷다 나비를 발견하면 그것을 따라 산속을 돌아다녔다. 지네를 잡겠다고 친구들과 들춰본 돌 밑에서 잠든 뱀을 보고 비명을 질렀을 때가 행복했다는 시인은 농어촌, 산촌 할 것 없이 가파르게 도시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제주 땅에서 잃어버린 무언가를 시편으로 드러냈다.

'먼물깍'에서 '꽃자왈'까지 등장하는 동물원색 빛깔을 담은 갈색 두점박이사슴벌레도 꽃자왈에 사는 멸종 위기종 1급 곤충이다. 하지만 꽃자왈을 가까이서 보겠다는 건기 코스나 탐방로 개설, 거기 다 관광지 개발 등으로 야생 동식물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 시인은 이 시대에 요구되는 공존의 삶을 위해 아이는 물론 어른 독자들도 함께할 수 있는 시들을 펼쳐놓았다. '먼물깍'은 "제주도 롱뇽"에 "한 방울 / 한 방울 / 안약을 넣는" 습지다. '남방큰돌고래'는 이즈음에 "건물들은 / 점점 많아지고 / 더 멀리 돌아야 해서" "입이 땀 밧" 나왔다. "햇살 따가우면 / 돌맹이 밑에서 낚짐"을 자는 '제주도롱뇽'은 물 온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느낄 수 있는 기후위기의 지표다.

"세상이 낯선 나뭇잎들이 / 수런거리는 소리가 들려. // 이곳에서는 음악도 필요 없어. / 이끼들도 노래를 하는걸. // 이 곳은 어찌면 너의 마음이야. / 난 언제부터인가 / 네 마음에 들어와 있으니까." 시집의 맨 끝에 놓인 긴 시 '꽃자왈'에 깃든 존재들은 "저 너머가 두렵다"고 털어놓는다. 그 공포감을 만들어낸 "덩치 큰 사람들"은 그들과 같이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림 박물, 한그루, 1만원. 전선희기자

공존하는 삶 꽃자왈의 안녕을 빌며

표지에 등장하는 동물원색 빛깔을 담은 갈색 두점박이사슴벌레도 꽃자왈에 사는 멸종 위기종 1급 곤충이다. 하지만 꽃자왈을 가까이서 보겠다는 건기 코스나 탐방로 개설, 거기 다 관광지 개발 등으로 야생 동식물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 시인은 이 시대에 요구되는 공존의 삶을 위해 아이는 물론 어른 독자들도 함께할 수 있는 시들을 펼쳐놓았다. '먼물깍'은 "제주도 롱뇽"에 "한 방울 / 한 방울 / 안약을 넣는" 습지다. '남방큰돌고래'는 이즈음에 "건물들은 / 점점 많아지고 / 더 멀리 돌아야 해서" "입이 땀 밧" 나왔다. "햇살 따가우면 / 돌맹이 밑에서 낚짐"을 자는 '제주도롱뇽'은 물 온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느낄 수 있는 기후위기의 지표다. "세상이 낯선 나뭇잎들이 / 수런거리는 소리가 들려. // 이곳에서는 음악도 필요 없어. / 이끼들도 노래를 하는걸. // 이 곳은 어찌면 너의 마음이야. / 난 언제부터인가 / 네 마음에 들어와 있으니까." 시집의 맨 끝에 놓인 긴 시 '꽃자왈'에 깃든 존재들은 "저 너머가 두렵다"고 털어놓는다. 그 공포감을 만들어낸 "덩치 큰 사람들"은 그들과 같이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림 박물, 한그루, 1만원. 전선희기자

**합 축 격**  
CONGRATULATIONS  
**제56회 공인회계사**



**정지현**  
(신성여고 59회 졸업,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 재학 중)  
[부: 정영필(제주지방검찰청 근무) · 모: 조영금(쉬렉 리전스 대표)]

제56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백부 정영진 숙부 정영성 숙모 임은아 고모 정순선 고모부 김성주

**취 축 임**  
CONGRATULATIONS  
**영주고등학교 교장**



**이동성**  
(부: 이영형 · 모:故 작임순)

영주고등학교 교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촌 고영우 외 형제일동

**취 축 득**  
CONGRATULATIONS  
**제주대학교 교육학박사**



**김정아**  
(김녕초 교사)  
(사부모: 이창경 · 홍춘선)  
(남편: 이승훈(제주도청 근무))

제주대학교 교육학박사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전주이씨 안양군과 광령문종일동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ihalla.com**

**한라일보가 대 勢 세 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2020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수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5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해브'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20년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20년 발표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